

기업 활력 'UP' ... 세정지원 요청

전주상의,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지역 상공인 간담회... 박 청장 "세정지원 강화 노력 약속"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1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전주지역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주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1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전주지역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주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한 박석현 청장의 설명과 함께 세정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애로 수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소재철 (주)장한중합건설 회장은 현행되고 있는 기업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 5년으로 줄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윤방섭 (주)삼화건설사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세무환경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로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급적 세무조사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배려를 당부했다.

특히, 원태연 (유)원진일미농 부사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의 대책

으로 젊은이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가 자녀 결혼 시 주택자금에 양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납세교육 확대, 비상장주식 기업의 평가액 현실화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정 등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선홍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세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세

제혜택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석현 청장은 "기업인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세정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 위주의 세무조사와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여성농업인 위한 시범마을 키운다

농진청, 에티오피아 KOPIA 시범마을 출범식 가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12일 에티오피아 홀레타에서 농촌진흥청 이점식 국외농업기술과장을 비롯한 출장단과 에티오피아 농림부 장관, 농업연구원(EIAR) 청장, 주에티오피아대한국대사, 채소재배 및 양계농가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영농 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의 평균해발고도는 2,500m의 고산지대가 대부분으로 열대, 아열대 및 온대성 채소 생산과 양계에 유리한 기후로 채소 및 양계 생산은 소규모 농가의 영양공급 및 가계수입을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고품질 품종, 종자 등의 부족과 우기(雨季)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에티오피아 농업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채소재배기술 및 양계 사육기술 부족으로 농가 소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정부역신 사회적 가치 공헌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에티오피아 센터를 2011년도에 설립,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원과 공동협력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마늘, 토마토, 고추, 싹토,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및 양계 사양기술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참여형 마늘 생산 실증사업에서 채소의 종자증식부터 수확까지의 재배기술 교육과 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당 소득이 약 6배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KOPIA 에티오피아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걸쳐 3개 마을의 300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0% 소득증대를 목표로 채소와 양계에 대한 복합영농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년 시범마을 지도자 등을 국내로 초청 연수하여 한국의 농업기술을 경험하고, 현지에서는 KOPIA 소장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교육 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자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시범마을 농가의 자립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점식 국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에티오피아 센터를 2011년도에 설립,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원과 공동협력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마늘, 토마토, 고추, 싹토,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및 양계 사양기술 등을 지원해 왔다. /김윤상 기자

Farm Vegetables and Poultry Project 2019 Opening Ceremony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

공모 내달 3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LX)가 전라북도와 함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LX와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를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기업·개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발굴하고, 개인 분야에서는 정규직 전환, 청년·시니어, 지역인재 취업 등 우수 수기를 선정한다. 공모는 LX홈페이지(www.lx.or.kr) '국민소통플랫폼'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8개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을 출품한 응모자에게는 총 320만원의 상당의 상금과 함께 LX 사장 및 전라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가치실현처(063)713-1147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



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사회공헌 역량 결집하기 위해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공익 실천 본격화

전북농협, NH지역사회공헌단 발족식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이 공익사업, 소외계층 지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북농협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

협 사회공헌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전북농협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임직원 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조성

하여 운영된다. 각 법인·사무소별 사회공헌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범농협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사랑의 연탄 3,000장을 전달하고 60여명의 임직원이 한데 힘을 모아 취약계층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지역사회공헌단은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0월 전북지역 고용률·실업률 모두 상승

고용 59.8%로 전년비 0.3%p 실업률은 2.9%로 0.1%p ↑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59.8%로 0.3%p 상승하고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2.9%로 0.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9 10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15세 이상 인구는 15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천명(-0.4%)이 감소했다.

도내 총 취업자 수는 93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동일한 반면 실업자 수는 2만 8천 명으로 1만 1천명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천명 감소했다. 여자는 40만 5천명으로 5천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한 59.8%로 나타났다. 이 또한 남성은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하고, 여성이 0.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 대비 농림어업은 8천 명(4.5%), 전기·운수·통신

금융업은 1천 명(0.7%) 도소매·숙박음식점은 1천 명(0.6%) 등에서 증가했다. 광공업, 건설업은 각각 6천 명(-0.5%), 2천 명(-0.6%)이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 1천명(59.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천명(60.0%) 여자는 1만 명으로 4천명(59.7%)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1.0%p 상승한 2.9%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독감예방 접종 '필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원장 최영득,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위원을 통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며,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므로 10월~11월 중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열감(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이지만,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잘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당뇨병성 신장 질환 개선 효과

식품연, 계열등 추출물 활용

당독소 생성 효과적 억제

관련 단백질 발현 조절

계혈등(雞血藤) 추출물이 당독소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련 단백질 발현을 조절해 당뇨병성 신장 질환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연 기능성소재연구원 하삼근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콩과의 말피두의 덩굴줄기인 계혈등 추출물을 활용하는 경우, 당뇨로 인한 신장에서의 합병증이 개선됨을 제2형 당뇨 마우스 투여 실험을 통하여 확인했다. /김윤상 기자

원인 분석 결과, 계열등 추출물이 당독소(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및 생성된 당독소 교차결합 분해 효능과 관련 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해 이러한 효능이 나타났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 질환인 당뇨병은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 질환을 말하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 마우스에 계열등 추출물을 6주간 투여한 결과 당뇨 합병증의 주요 인자 중 하나인 지질대사 이상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신장에서 최종당화산물 및 관련 단백질 발현 억제를 확인했다. 황진택 식품(연) 식품기술연구본부 본부장은 "계혈등 추출물이 최종당화산물 조절을 통하여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 성과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